■ 민족문화연구 제112호(2026.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031-061.
http://doi.org/10.17948/kcs.2026..112.031

‘붉다, 빨갛다’의 개념 은유와 상징 의미 연구
—대중가요 노랫말을 대상으로—

정주연(鄭周娟)*

목 차

1. 서론
2. 색채어의 의미 확장: ‘붉다, 빨갛다’
3. ‘붉다, 빨갛다’의 개념 은유와 변이 의미
4. 공기어와 의미 변화 양상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3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약 100년에 걸친 한국 대중가요 노랫말에서 나타나는 ‘붉다’ 계열 색채어의 상징 의미를 관찰하여 개념 은유 틀을 통해 분석하고 그 변화 양상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색채어 ‘붉다, 빨갛다’를 대상으로 결합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목표 의미를 개념 은유 이론의 위계 구조 안에서 기술하였다. 가장 상위 층위의 개념 은유로 ‘붉다, 빨갛다’는 ‘강도, 생명력’이라는 두 영역의 목표 영역과 결합하며 세부적으로 각각 의지, 정열, 사랑, 부끄러움, 유혹적 아름다움, 슬픔, 그리움 등으로 분기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공기어를 분석하여 두 색채어의 결합 대상이 신체, 자연물, 인공물, 추상물 등과 변별적으로 나타남을 관찰하였으며 ‘붉다’와 ‘빨갛다’ 각각의 상징 의미가 시대별로 실현되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붉은색 색채어의 은유 양상이 대중가요 노랫말이라는 담화 특성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논의하였다.

* 고려대 학부대학 강사.

주제어: 빨간색, 붉은색, 붉다, 빨갛다, 색채어, 은유, 색채 은유, 개념 은유, 상징, 대중가요, 노랫말, 가사, 담화적 의미.

1. 서론

본고는 대중가요 노랫말이라는 특정 텍스트 장르에서 나타나는 '붉다' 계열 색채어의 상징 의미를 관찰하여 개념 은유 틀을 통해 분석하고 그 변화 양상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색채어는 인간의 경험을 '시각'이라는 감각으로 인지하여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적 장치로서, 시각 이미지와 관련되어 언어적인 부분과 감각적인 부분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1]. 따라서 색채어는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는 개념 은유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색채를 특정한 이미지로 인식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시대적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형성되는바, 색채어 의미와 그 확장, 시대별 변천을 추적하는 일은 당대 민중이 공유하던 집단적 정서와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는 작업의 일환이 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색채어의 의미 연구는 보수적으로 고정된 사전적 의미를 대상으로 하거나 관용적 표현에서 나타나는 관습적 의미를 단편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머무른 경향이 있고, 텍스트 유형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은유의 양상을 설명하는 데까지 나아간 연구는 드물다. 한편 색채어 의미의 언어권별 비교 연구는 비교적 활발한 편인데 이러한 연구에서는 동일한 색채어라도 문화적으로 사용 영역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다루므로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유사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2].

'붉은색'은 인류 역사상 생존을 위해 중요하게 인식된 색으로, 색채어 중에서도 역사와 문화에 따라 뚜렷한 상징성을 지닌다. 이와 함께 붉은색에 대

1) 구본관, 「한국어 색채 표현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형태론』 10, 형태론, 2008.
2) 박평화 외, 「색채어 '노란'의 담화적 의미 연구 -은유와 환유를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90, 한국어의미학회, 2025.

한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를 겪어왔으며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이미지의 다양한 연상 의미가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붉다' 계열 색채어가 단순한 색채 묘사를 넘어 어떻게 사회문화적 함의를 획득하고 변화했는지를 살피는 것은 유의미하다.

한편 법률 텍스트, 과학 텍스트, 정치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은유의 공시적·통시적 양상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데이는 텍스트가 그 장르에 따라 사회적 맥락이나 특정 수용자 집단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대중가요 노랫말은 당대의 시대 정신과 대중의 정서를 압축적으로 반영하는 텍스트이면서 다른 텍스트 장르와 비교하여 가장 광범위한 수용자 집단을 상정할 수 있다. 장르적 특성상 비유나 상징 등 문학적 장치들 또한 흔히 사용되므로 개념 은유를 기제로 한 의미 확장 양상을 관찰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대중가요 노랫말에서 나타나는 붉은색 색채어의 상징 의미를 관찰하고 상징 의미의 맥락적 유동성을 개념 은유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노랫말 자료에서 붉은색 계열을 표현하는 형용사인 '붉다'와 '빨갛다'의 은유 사례를 분석하여 개념 은유 틀을 유형화하고 그 공기어와 시대별 의미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1)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

한국어 색채어의 언어학적 연구는 어원론, 조어론, 어휘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비교언어학적으로 접근한 연구도 활발하다. 그중에서도 본 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색채어를 인지언어학적, 의미론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다시 색채 표현의 결합 양상을 살펴 의미 확장 기제로 설명하거나 코퍼스언어학적 관점에서 실제 사용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론적 논의로 구분된다.

먼저 송현주[3]는 고유어 기본 색채 형용사를 대상으로 인지적 의미 확장 과정을 분석하였다. 색채어의 의미는 구체물의 색을 지시하는 것에서 출발하

3) 송현주, 「색채 형용사의 의미 확장 양상」, 『언어과학연구』 24, 언어과학회, 2003.

여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는데 그 중 '붉다'는 다의 확장이 활발하지 않고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의미로 확장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선영[4]은 '푸르다, 붉다' 계열과 '파랗다, 빨갛다' 계열의 실제 사용 양상과 통시적 형성 과정을 비교하여 색채감 차이를 규명하였다. '붉은 피, 붉은 고추'와 같이 자연에서 온 색에는 '붉다'가, '빨간 구두, 빨간 립스틱'과 같이 인공물의 색에는 '빨갛다'가 더 많이 쓰인다는 점에서 명도와 채도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문금현[5]은 5가지 기본 색이 포함된 관용 표현을 분석하여 한국인이 색채어에 부여하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제시하였고,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인지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을 구체화하여 보여주었다.

한편 실제 사용 자료나 특정한 텍스트 맥락을 바탕으로 상징 의미를 규명한 연구들도 보인다. 신현숙박건숙[6]은 뉴스 텍스트를 분석하여 기본 색채어들이 한국어 문화 속에서 어떠한 형태와 의미로 사용되는지 살폈으며 김해연[7]은 국어 말뭉치에서 색채어와 그 파생어가 문법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분석한 논의이다. 박중우[8]는 세종계획 말뭉치 내의 색채어 표현에 대한 각각의 결합 정보와 빈도를 추출하여 중국어 색채어와 비교하였고 최윤[9]은 고유어와 파생어 색채어의 공기어 분석을 통해 연어 기준을 검토하였다. 이들 연구는 실제 언어 자료를 분석하여 색채어의 사용 환경을 통계적으로 규명하고 있으나 개별 사례에 대한 분석이 깊이 있게 다루어진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박평화 외[10]는 색채어 '노란'이 뉴스 담화에서 어떠한 의미로 나타나고 재구성되는지 살핀 논의로 은유와 환유의 의미 확장 기제를 통해 도

4) 이선영, 「국어의 기본 색채어와 그 의미」,『국어국문학』 162, 국어국문학회, 2012.
5) 문금현, 「색재어 관련 관용 표현에 나타난 인지의미 양상」, 『국어국문학』 163, 국어국문학회, 2013.
6) 신현숙・박건숙, 「한국 문화에 나타난 색채어 의미 연구」, 『국어교육』 125, 한국어교육학회, 2008.
7) 김해연, 「국어 기본 색채어와 파생어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코퍼스언어학적 분석」, 『언어』 39-4, 한국언어학회, 2014.
8) 박중우, 『한중 색채 형용사 대조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21.
9) 최윤, 「한국어 고유어 색채어와 그 공기어의 의미-색채어와 명사, 동사와의 공기 관계 분석을 통해-」, 『영주어문』 55, 영주어문학회, 2023.
10) 박평화 외, 위의 글.

출된 담화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노란'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담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를 유형화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색채어의 의미를 단어 내부로 고정하지 않고 공기어와 함께 담화 속에서 확장되는 경로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색채어 자체가 갖는 개념 은유 패턴을 기술하고자 하는 본 논의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연구 방법론적 측면에서 개념 은유 패턴을 통시적으로 접근한 국내 연구는 심지연[11], 전혜영[12] 정도가 있다. 심지연에서는 1920년대 이후부터의 신문 기사에서 나타난 전쟁 도식 은유를 분석하였고 전혜영은 15세기 말 뭉치를 참고하여 질병의 개념 은유를 현대 국어와 비교한 것이다. 은유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에 비해 은유 패턴의 통시적인 변화와 흐름을 살피는 논의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색채 은유 분석 틀인 개념 은유는 은유를 하나의 언어적 표현이 아닌 인간의 인지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으로, 공유된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경험을 토대로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개념화되어 언어로 발현된다고 본다. 화, 사랑, 기쁨, 슬픔 등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다른 개념의 속성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언어 표현의 차원이 아니라 "한 정신적 영역을 다른 정신적 영역에 의해서 인지하는 개념화 장치"라고 할 수 있다[13]. 개념 은유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이 자리하는 목표 영역과 구체적인 개념의 집합을 뜻하는 근원 영역을 설정한다. 목표 영역은 구체적인 근원 영역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영역이며, 인간은 신체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구체적인 근원 영역을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인 목표 영역을 이해하는 데에 투사한다. 이러한 '신체화(embodiment)'는 개념 은유의 뿌리가 되는 기제이다.

예를 들어 [사랑은 여행](LOVE IS A JOURNEY) 개념 은유는 '사랑'이라

11) 심지연, 「전쟁 도식 은유의 연사적 연구」, 『한국학연구』 52,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5.
12) 전혜영, 「은유 표현을 통해 본 한국인의 질병관」, 『한국문화연구』 30,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6.
13) Lakoff, G. & Johnson, M.(1980), Metaphors We live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노양진·나익주 옮김(2006),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박이정.).

는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이고 경험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여행'이라는 개념으로 사상된다. 이러한 개념 은유의 실제 사용례를 살펴보면 상위 수준의 추상적인 은유에서 좀 더 구체적인 하위 수준의 은유로 확장되거나 세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행' 은유에 모두 들어맞는 일관된 단일한 이미지가 있다기보다 자동차 여행, 기차 여행, 바다 여행 등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여행 중 하나로 드러나면서 그 외연이 넓어지는 것이다. 이때 하위의 은유는 상위 은유의 논리적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구체적인 특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현되는데[14] 이러한 확장과 세분화는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다.

색채어 은유의 경우 감정 영역을 드러낼 때 인간의 생리적 반응에 기반한 신체화의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눈시울이 붉어지다, 얼굴이 파랗게 질리다, 얼굴이 노랗다' 등 신체적인 특징은 색채를 통해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색채어 은유는 신체적, 지각적 기반을 통한 개념 은유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다[15].

2) 연구 방법

본고는 상업적 음반을 계기로 노래가 대중적으로 유행하게 된 1930년대를 시작으로 2020년대까지 발매된 대중가요 노랫말을 자료로 활용하였다[16]. 분석 대상은 근원 영역의 표현을 중심으로 탐색하여 은유적 의미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근원 영역에 해당되는 색채 표현은 적(赤)색 계열의 대표 형용사인 '붉다, 빨갛다'를 선정하였으며 형용사 활용형 중 가장 많이 사

14) Lakoff, G. & Johnson, M.(1980), 위의 글,93-94면.

15) Kövecses, Z.(2002),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이정화 외 옮김(2003), 은유, 서울: 한국문화사.)

16) 20세기 초반 유성기의 도입과 레코드사의 성장은 한국 대중음악의 근대화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잡가, 판소리, 민요 등이 민족 전통적인 성격을 가진 대중 향유 문화였다. 1930년대는 외래적 대중가요 양식인 트로트와 신민요가 양대 양식으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신민요의 경우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만(이영미, 2006) 신민요는 외래적 음악 양식과 그 성격이 이질적이고 1930년대 이후 점차 대중성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통시적인 흐름을 살피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제외하였다.

용되는 관형사형 '붉은, 빨간'과 부사형 '붉게, 빨갛게' 형태를 기준으로 검색하여 해당 형태가 포함된 노랫말을 수집하였다[17].

색채 형용사의 관형사형은 특정 명사와 결합하여 그러한 색채적 성격을 가진 대상이 의미하는 상징을 인지적으로 활성화시킨다. 또한 색채 형용사는 '붉게 피다, 빨갛게 물들다'와 같이 현상을 수식함으로써 상징적 의미를 띠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색채어의 부사형은 정도성을 나타내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상황이나 감정을 강조하는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근원 영역의 대표 활용형으로 삼을 수 있다[18].

붉은색 은유의 수집 방법은 네이버 노래 가사 검색 서비스와 멜론 가사 검색을 이용하였다. 검색어 '붉은, 붉게, 빨간, 빨갛게' 각각의 검색 결과에서 해당 표현이 은유적으로 사용된 예를 개별적으로 탐색하여 선택하고[19] 개별 예들의 표현, 맥락, 출처를 수집하였다. 네이버나 멜론과 같은 온라인 사이트의 경우 1930-40년대 가요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므로 해당 시기 노랫말을 보완하기 위해 식민지시대 음반으로 발표된 대중가요를 실은 서적을 포함하여 가사를 추출하였다[20]. 각각의 표현에 대해 근원 영역, 목표 영역, 개념 은유, 함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7) 한국어의 다양한 색채어 중에서 '적(赤)'과 관련된 색채어는 접두사나 접사 첨가, 자음 및 모음 교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되어 나타난다. '붉다'에 접미사가 결합된 '발갛다'가 있고 모음 교체형인 '벌겋다', 자음 교체형인 '빨갛다, 뻘겋다'가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접미사가 결합된 '발그름하다, 발그스름하다, 발그대대하다, 발그레하다, 발그죽죽하다' 등이 있으며 접두사가 결합한 '새빨갛다, 시뻘겋다'도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색채어 변이형 중 가장 빈도가 높고 기본적인 형태인 '붉다'와 '빨갛다'를 선정하였다.

18) 김해연(2014; 757-758)에 따르면 말뭉치에서 '빨갛다'의 활용형 중 관형사형이 69.4%, 부사형이 25.7%로, 수식형이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이는 박중우(2021)의 분석 결과와도 유사하다.

19) 노랫말이라는 장르는 시어에 멜로디를 붙인 것이므로 사용된 색채어의 대부분은 상징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을 선정할 때, 색채어가 문자적 의미 그대로 사용되거나 색채어를 사용한 작사가의 의도 등 맥락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색채어의 상징 의미가 뚜렷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 대상은 노랫말 텍스트를 통해 붉은색의 연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예를 수집하였다.

용례의 1차 선정과 분석 이후, 분석 과정에서 놓친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먼저 직접 노랫말을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의미를 검증한 이후에 검증 결과가 맞는지 재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최종적인 의미 판단과 분류는 모두 연구자가 선정하였으며 AI의 분석 결과 중 문맥과 맞지 않는 예시는 선정하지 않았다. 분석에 보조적으로 활용한 도구는 Claude AI(sonnet 4.6)이다.

20) 본고에서 살펴본 책은 '사의 찬미(외)'(이영미 이준희, 2006), '한국대중가요사'(이영미, 2015), '오빠는 풍각쟁이야'(장유정, 2006)

〈표 1〉 붉은색 은유 수집 사례

표현	맥락	출처	년도	근원영역	상징 의미	개념은유	함의(entailment)
붉게 타오르네	지금은 사라져간 그때의 기억마저 한 여름에 장미보다 더 붉게 타오르네	그대 그 순간은 어디갔나/원미연	1990	붉은색	그리움	붉은색은 그리움이다	기억이 장미보다 더 붉게 타오른다는 비교 표현. 감각(시각)이 기억 감정을 소환하는 구조. 소진되지 않고 오히려 더 타오르는 그리움의 역설
붉게 타다	오시지 않는 님 기다림 속에 서산마루 저녁노을 붉게 타는데	님마중/이은하	1990	붉은색	그리움	붉은색은 그리움이다	서산마루 저녁노을+님 기다림의 고전적 이별 장면. 타다=기다림의 소진 과정.
붉게 타는 노을	붉게 타는 노을에 피는 추억 잔주름에 고인 눈물 하루에도 열두번씩 그리운 고향	팽양 아줌마/이민숙	1990	붉은색	그리움	붉은색은 그리움이다	고향+추억+잔주름+눈물의 집합. 붉은 노을이 고향 그리움을 압축하는 표상. 신체 노화(잔주름)와 결합해 시간의 흐름이 두터워짐을 표현
붉게 물드네	그대 눈에 노을이 있네 나의 눈도 붉게 물드네 우리 손을 잡고 해변을 걸어가면서 그리운 마음을을 노래해	해변에서/신정숙	1990	붉은색	그리움	붉은색은 그리움이다	그대 눈에 노을이 → 나도 붉게 물든다는 감정 전이. 공감 동화의 은유. 손을 잡고 함께 그리워하는 연대의 감정
붉게 타오르다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건 떠나가는 햇빛의 울음일까 아무말 없이 그렁그렁 맺혀진 너의 눈물 이젠 알듯해	노을 그리고 나/이승철	1990	붉은색	이별 눈물	붉은색은 이별이다	노을이 떠나가는 햇빛의 울음이라는 의인화. 자연 현상이 이별의 감정을 먼저 예시하고, 너의 눈물이 뒤따름. 자연과 인간의 감정이 등기화되는 구조
붉게 만든 이내 가슴	내 마음 깊이 간직한 내 사랑 있잖아 붉게 만든 이내 가슴에 안개는 정말 싫어	그대를 기다리며/정재진	1990	붉은색	사랑	붉은색은 사랑이다	가슴이 붉어진다는 신체화. 사랑이 내부에서 색을 발산하는 이미지. 안개는 정말 싫어라는 방해물 거부와 결합해 순수한 사랑의 강도를 강조
붉게 피던 나의 가슴	붉게 피던 나의 가슴이 이슬에 젖어 그다지도 예쁜 마음이 시들어가네	장미와 가시/하준화	1991	붉은색	청춘 순정의 소멸	붉은색은 청춘이다	이슬에 젖어 시들어가네라는 낙화 시들음의 은유. 피던(개화)↔시들어가네(낙화)의 대비 구조. 아름다웠던 마음의 소멸이 꽃의 생애로 형상화
하늘도 붉게 타네	가는님도 서럽지만 보내는 님도 서러워 걸음걸음 한이 맺혀 하늘도 붉게 타네	꽃상여는 떠나가네/백영규	1991	붉은색	한(恨) 비탄	붉은색은 한이다	걸음걸음 한이 맺힌다는 민요적 정서. 하늘까지 붉게 타는 것은 개인의 감정이 우주적으로 확장됨. 가는 이 보내는 이 모두의 비탄이 하늘에 투사
붉은 입술	저산 하늘 노을은 창상 나의 창에 붉은 입술을 부딪혀서 검게 멍들고	너를 사랑하고도 / 전유나	1991	붉은색	상처 희슨	붉은색은 상처이다	노을이 창에 붉은 입술을 부딪혀 검게 멍든다는 충격적 이미지. 아름다움(붉은 입술)이 접촉으로 훼손됨. 사랑의 아름다움이 상처로 귀결되는 역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총 용례수는 231건이며 '붉다'계열 122건(52.8%), '빨갛다'계열 109건(47.2%)이다. 각 시대별 용례 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2〉 붉은색 은유 용례 분포

시기	붉다	빨갛다	합계
1930-40년대	10	2	12(16.7%)
1950-60년대	24	9	33(27.3)
1970-80년대	41	26	67(38.8%)
1990년대	16	12	28(42.9%)
2000년대	7	13	20(65.0%)
2010년대	11	22	33(66.7%)
2020년대	13	25	38(65.8%)
합계	122	109	231

이 수치는 100년에 걸친 대중가요 전체를 텍스트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정량적인 분석 결과를 근거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대중가요 노랫말이라는 텍스트 특성상 시대별 자료 접근성에도 큰 차이가 있다. 1930-40년대 자료는 매우 희소한 반면, 2000년대 이후 자료는 음

원 플랫폼을 통해 음원 발표가 쉬워짐에 따라 대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대별 용례 수의 차이는 해당 시기의 실제 색채어 사용 빈도를 반영한다기보다 상당 부분 접근성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수집된 자료 내에서 '붉다, 빨갛다' 계열 색채어가 시대에 따라 어떤 상징 의미와 결합해 왔는지를 유형화하고 그러한 유형의 지속, 확장, 분화되는 경향을 포착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색채어의 의미 확장: '붉다, 빨갛다'

색채어의 의미 확장과 변화를 다루고자 할 때는 텍스트 맥락적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21].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색채어의 다의 확장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색채어의 연상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공기하는 단어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검은 머리'에서 검은색이 [젊음]을 상징하지만 '검은 돈'에서 검은색은 [부정]을 상징하는 것처럼[22] 색채어를 통해 연상되는 긍정이나 부정의 이미지 또한 고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나아가 색채어와 결합하는 공기어가 동일한 경우에도 그 상징 의미는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문 기사에서 나타난 '노란 우산, 노란 손수건'은 희망의 상징인 동시에 추모와 슬픔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며[23], 노랫말 텍스트에서 '입술'과 결합한 붉은색은 '굳은 의지'을 상징하는 한편, '유혹, 도발적인 에너지'를 나타낼 수 있다.

다음으로 텍스트 맥락적 요소 중에서 텍스트 장르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

21) 이는 색 자체에서 연상되는 의미와 언어를 통해 나타난 의미가 구분된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조영수(2017; 769-72)는 한국인, 미국인, 독일인 각 100명씩을 대상으로 색깔에 대한 연상, 선호색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빨강에 대해 한국인은 열정(89명), 투쟁/갈등(5명), 전쟁(3명)을 연상하였다. 한편 언어에 나타난 '중요한, 많은, 건강한, 나쁜' 등의 의미는 색채 연상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즉 빨강이라는 색에 대해 한국인 대부분은 '열정'을 연상하였으나 굳어진 표현을 통해서 드러난 '중요한, 건강한, 나쁜' 등의 의미는 연상 의미로 나타나지 않는다.

22) 문금현, 위의 글.

23) 박평화 외, 위의 글, 193면.

동일한 은유라도 장르와 상황이 달라질 때 은유의 의미, 기능, 감정적인 효과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Semino et al.[24]은 특정 텍스트 간에 동일한 은유가 재사용될 때 은유의 기능이 바뀔 수 있음을 문(gate) 은유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이는 전문가들 사이의 과학 논문에서 통증의 생리적 기제를 설명하기 위한 은유 (gate control theory of pain)이지만 일반 대중을 위한 치료서에서는 일상 생활 속 통증 조절을 설명하는 데에 쓰일 수 있다. 즉 장르와 사용역이 은유의 의미, 기능 변화에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노랫말에서 특정 단어를 '붉은'이 수식하면서 '국가에 대한 충절', '임에 대한 강렬한 사랑', '강렬한 비극이나 슬픔' 등의 구체화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텍스트 맥락을 고려했을 때에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색채어 의미를 다룬 기존 연구에서는 색채어의 다의 확장 양상을 추적할 때 그 기본 의미에서부터 출발한다.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의 '붉다'와 '빨갛다'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25]

〈표 3〉 '붉다, 빨갛다'의 사전적 의미

붉다		빨갛다	
〈표준〉	〈고려대〉	〈표준〉	〈고려대〉
1. 빛깔이 핏빛 또는 익은 고추의 빛과 같다. 2.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다.	1. (물체나 그 빛깔이) 핏빛과 같다. 2. {비유적으로} (사람이나 그의 사상이) 공산주의의 경향이 있다.	1. 피나 익은 고추와 같이 밝고 짙게 붉다.	2. (사물이나 그 빛이) 핏빛이나 익은 앵두의 빛을 가진 상태에 있다[26].

24) Semino, E., Deignan, A.& Littlemore, J.(2013), "Metaphor, Genre, and Recontextualization", Metaphor and Symbol, 28-1, 44-46면.
25) 이하 〈표준〉, 〈고려대〉로 표기
26) 〈고려대〉에서 빨간색을 '익은 앵두의 빛'으로 기술한 것은 〈우리말 큰사전〉의 뜻풀이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서 색채어를 정의하는 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색은 그 시각적인 원형성을 자연물에 빗대어 설명한다. 색채어의 의미를 환경적 또는 구체적인 원형성에 기초하여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특정 색채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붉다, 빨갛다'의 개념을 '피, 고추, 앵두'를 통해 제시한 것은 이들 대상을 사람들이 붉고 빨간 것으로 공통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이다[27]. 색채어의 기본적인 쓰임은 대상을 특정한 색을 가진 원형성의 대상 색으로 지시하는 데에 있으므로 사전의 고정된 의미로서 확장된 의미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색채어가 포함된 관용어의 경우 색채어가 가지는 고정된 의미 확장 양상을 살피기 쉽다. 조영수[28]에서는 관용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붉은색의 의미를 유형화하여 '좋은/중요한, 환락/흥청거림, 나쁜/위험, 대단히/전혀, 건강한/살아있는'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색채어의 의미는 특정 사물에 대한 시각 정보를 반복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색과 대상을 동일시하게 되고 색채어 자체를 특정한 상징이나 가치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 확장된다[29]. 따라서 색채에 대한 연상 의미는 결합하는 대상이나 현상의 확장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간의 연구에서도 색채어와 결합하는 고정된 대상의 변화에 따라 연상 의미를 추적하고 있다.

문금현[30]은 색채어가 다의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지 의미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 '구체물의 색 -〉 구체물의 색으로 인한 이미지 형성 -〉 구체물을 비유 대상으로 한 1차적인 이미지화 -〉 추상물의 이미지 형성 -〉 추상물을 비유 대상으로 한 2차적인 이미지화'의 경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빨간색의 인지 의미를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이때 구체물과 추상물을 비유 대상으로 한 이미지화의 경로는 고정된 관용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 것이다[31].

---

27) 이정애, 「국어 색채어의 의미와 시각의 보편성」, 『한국어 의미학』 27, 한국어 의미학회, 2006, 158면.
28) 조영수, 『색채의 연상』, 가디언, 2017.
29) 문금현, 위의 글, 79면.
30) 문금현, 위의 글.
31) 김기수는 이처럼 상징 의미를 파악할 때 주로 관용적 표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관용적 표현의 분석에서 개념 은유에 해당되는 증거들이 관찰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김기수, 「개념은유이론의 발전과 평가」, 『영어영문학연구』 56-4,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2014, 27면.)

1) 빨간색 눈-〉 수치심/슬픔/분노 =〉 얼굴(낯)이 붉어지다/홍당무가 되다/눈시울이 붉어지다/눈이 벌겋게 뒤집히다/눈이 (시)뻘개지다/붉으락푸르락 (심리 표현)
2) 빨간 신호(불)-〉 중단-〉 부정적 상황 =〉 빨간 신호(불)가 켜지다/빨간 줄이 그이다(상황 표현)
3) 빨간색 피-〉 혁명/공산주의 =〉 붉은 사상(이념 및 가치 표현)
4) 여성성 =〉 홍일점(존재 표현)

박평화 외[32]는 기존 논의에 기반하여 색채어 특화 의미 확장 경로를 제시하였다. 지각적 의미에서 정서, 평가 의미를 거쳐 담화적 의미로 이동하고 고정화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시각 이미지가 은유나 환유 기제를 통해 존재, 행위, 상태 의미로 전이되고, 이것이 다시 심리·정서, 사회·문화, 추상·개념 영역으로 확장되다가 목표 영역의 의미로 고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굳어진 표현뿐만 아니라 색채어가 결합하는 대상에 대한 다양한 담화 맥락을 분석하여 의미 확장 경로를 넓힌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는 일상적으로는 자주 쓰이지만 관용적 표현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색채 표현의 연상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3. '붉다, 빨갛다'의 개념 은유와 변이 의미

색채어의 연상 의미는 맥락적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붉은색이라는 색채 자체가 환기시키는 이미지보다 붉은색을 가진 대상이나 현상이 환기시키는 이미지의 범주가 더욱 넓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다. 따라서 색채어의 의미 분석에서 개별 사례의 연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일한 표현으로도 다양하게 실현되는 의미를 기술하는 것은 자칫 색채어의 개별 표현들을 아우르는 인지적인 동기 없이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목록에 머물게 될 수 있다. 여러 결합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연상 의미는 결국 해

32) 박평화 외, 위의 글.

당 색채어가 가지는 의미의 총합이 된다는 점에서 담화 맥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결합 환경을 개념 은유 틀을 통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1) '붉다', '빨갛다' 개념 은유

이 장에서는 대중가요 노랫말에서 '붉다, 빨갛다'가 어떠한 목표 영역의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색채어의 의미는 특정한 방식으로 확장되는 경향성이 보이지만 대중가요 노랫말에서는 색채어가 매우 다양한 맥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붉은색 개념 은유를 다층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색채어는 감정이다] 개념 은유는 붉은색뿐만 아니라 여러 색채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개념 은유 틀이므로 특정 색채어의 의미적 특징을 '감정'이라는 추상적인 층위의 목표 영역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다. '붉은색' 계열 색채어의 상위 목표 영역은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하위의 목표 영역으로 분기된다. 따라서 '붉다, 빨갛다' 색채어가 갖는 상위 은유를 설정하고 그 안에 어떠한 하위 은유가 나타나는지 살피는 것을 통해 붉은색이 갖는 다양한 개념 은유 범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노랫말에서 붉은색과 빨간색이 공통적으로 갖는 상위 층위의 목표 영역은 강도(Intensity)와 생명력(vitality)이다. 이 각각의 하위 유형을 구분하여 그에 해당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붉은색/빨간색은 강도(Intensity)이다]

붉은색은 색채어 중에서도 피수식어의 정도성을 나타내는 데에 자주 사용된다. 붉은색 계열은 유채색 중에서 채도가 가장 높은 색으로 지각되는데 붉은색의 강하고 진한 채도적 특성은 정도성 은유의 동기로 작용한다. '빨간색' 안에서도 '새빨간 거짓말'이 '빨간 거짓말'보다 훨씬 강한 정도성을 가지는 것처럼 채도와 관련된 형태소 또한 은유적으로 정도성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노랫말에서 붉은색은 주로 의지, 결심, 생각 등의 내적 강도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거나 사랑, 부끄러움과 같은 감정적 개념 영역에서 그 정도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1) [의지, 결심, 결기]

- **붉은 입술** 깨물며 고생길 닥칠수록 내 앞길 가리고 굳세게 살아가자
〈쌍갈매기/최숙자〉
- 그리워 기다려서 지쳐진 몸은 단념의 **붉은 입술** 피가 묻어서
〈고적/이난영〉
- 정열의 **붉은 입술** 한 번 작정하면 변함이 없어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곽순옥〉
-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 죽이고 가 나는 괜찮아
〈눈 코 입/태양〉

예 1)에서 '붉은 입술'은 의지와 단념을 상징하므로 '붉은'은 의지와 단념의 강도를 표현한다.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감수하면서 결심을 유지하겠다는 내면적 결심의 강도가 붉은색과 결합하여 드러난 것이다. '빨간 예쁜 입술로 나를 죽이고 가'라는 노랫말은 예쁨과 죽음이 하나의 문장 안에서 죽음을 부를 만큼의 힘을 가진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조금 더 붉은 하늘'은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춰서고 있은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현재의 아름다운 붉은 하늘에 대해 그 정도의 붉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결핍의 감각이 '조금 더'라는 비교 표현을 사용하여 드러낸 것이다.

2) [감정적 분출]

- 아무리 사랑은 정이라지만 사랑을 할려거든 **빨갛게 타는 불꽃**처럼 화끈해야죠.
〈화끈해야죠/남진〉
- 피보다도 **더 붉은 우리의 사랑**
〈병운의 노래/채규엽〉
- **빨갛게 피어난 꽃**처럼 그대의 사랑을 안고서
〈사랑의 꿈/장덕〉
- 내 마음 깊이 간직한 내 사랑 있잖아 **붉게 만든 이내 가슴**에 안개는 싫어
〈그대를 기다리며/정재진〉
- 내 맘에 **빨간 불**이 켜졌어. 널 생각하면 이성은 꼼짝 못하고 얼어
〈물음표/프라이머리〉

위의 예 2)처럼 붉은색은 깊은 사랑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경우가 많다. 사랑의 감정적 크기를 '빨갛게 타는 불꽃, 피보다도 붉은, 빨갛게 피어난 꽃' 등에 비유하여 드러내고 있다.

또한 '빨갛다'에는 사회적 기호로서 쓰이는 은유가 특징적인데 '빨간 불, 빨간 신호등'과 같이 교통이나 방송 신호 체계에서 정지나 위험의 의미를 갖는 경우이다. 이는 시각적으로 강한 자극을 활용한 것으로, '빨갛다'가 일상적인 관습적 기호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쓰이는 것이다.

붉은색을 통해 감정의 강도를 드러내는 경우는 특정한 감정 자체를 상징하는 데까지 확장된다. 이에 해당되는 감정은 '사랑'과 '부끄러움'이 관찰된다. 관용어에서 '붉다'는 얼굴과 결합하여 분노, 부끄러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노랫말에서는 신체 부분과의 결합뿐만 아니라 자연물, 추상물 등 다양한 공기어와 함께 감정을 드러낸다. 각각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3) [사랑]

- 찢겨진 맘 사이 **붉은 말**이 터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단심가/에일리〉
- 언젠가 보게 될 **붉은 꽃**을 위해서 위험하다 가지 마라
  〈백유화/안예은 외〉
- 사랑하는 마음은 **새빨간 장미꽃**일까 이슬비가 내리면 **붉게 피는 장미꽃**일까
  〈장미와 단풍잎/세부엉〉
- 봄바람에 피어난 **붉은 꽃송이** 그 마음을 아는지 이슬이 맺혔네
  〈기다려도/이종배〉

4) [부끄러움]

- 내 말이 너를 **붉게 했는지** 파도소리도 들리지 않은 건 내 눈 앞에 뿌려진 너의 미소
  〈그 여름 이야기/최진영〉
- **빨갛게 젖은 얼굴** 부끄러움에 처녀 맘 아는 듯이
  〈대머리 총각/정민섭〉

3)에서 ‘붉은 말’이나 ‘붉은 꽃’은 사랑하는 감정을 강조하기 위한 대상이라기보다 각각 ‘사랑해요’라는 말, ‘사랑하는 이’ 자체라는 점에서 2)의 예와는 차이가 있다. 즉 붉은색이 신체나 자연물과 같은 구체물과 결합하여 감정의 정도를 드러내고 이후에 ‘정성, 마음, 말’ 등의 추상물과 결합하면서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붉은색이 감정에 직접적으로 사상되기보다 감정의 강도를 의미하다가 감정 그 자체로 사용된 것이다[33]. 이처럼 환유가 은유 확장의 동기로 작용하는 정확한 기점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1960년대 붉은색이 추상물을 수식하는 예가 다수 관찰되므로 해당 은유의 반복적 사용으로 은유가 확장되는 과정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붉은색/빨간색은 생명력(vitality)이다]

생명력은 살아 있음, 활기, 에너지, 생동감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랫말에서 붉은색이 생명력에 사상되는 은유에 해당되는 예는 생동감 넘치는 모습, 미적인 아름다움, 도발적인 에너지 등으로 나타난다. 아래 5)에서 ‘붉게 피는 동백’은 〈울릉도 트위스트〉에서는 시각적인 아름다움, 즉 생동감 있는 시각 이미지를 위해 사용된 반면, 〈낭자일기〉에서는 낭자의 정서적인 진심을 표상한다.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생명력이 신체를 넘어 마음과 정서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붉게 타다’는 표현은 노을과 같은 자연 현상과 결합하여 애달픔이나 소멸의 의미로 사용된 예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관습화된 은유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래 예에서 ‘입술이 붉게 타는’ 것은 시각적인 빛남과 아름다움으로 해석할 수 있다.

33) 이는 문금현(2013)에서 제시한 색채어 다의화 과정를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생동감·아름다움]
- **붉게 피어나는 동백꽃잎처럼** 아가씨들 예쁘고
〈울릉도 트위스트/이시스터즈〉
- 낭자는 꽃이었소 아름다웠소 한 마음 **붉게 피는 동백**이었소
〈낭자 일기/남인수〉
- 조금 이른 저녁 하늘 틈새로 **붉게 번져가는 저 노을** 아름다워라 어떤 말로도 모두 담아지지 않아
〈사랑했던 날/김나영〉
- 그대의 입술은 **붉게 타나요** 눈부신 노을처럼 정말 예뻐요
〈그대/이문세〉

6) [유혹·도발적인 에너지]
- 네 **빨간 립스틱** 네 야한 미소 네 모든 것이(너무 좋아)
〈너무 좋아/지드래곤〉
- 내 마음을 묶어버린 그녀의 **빨간 리본**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아
〈오 마이 줄리아/컨츄리꼬꼬〉
- 내 마음 모르시나봐 **빨간 립스틱** 바른 이유를, **빨간 매니큐어** 바른 이유를
〈모르나봐/이혜리〉

6)은 붉은색이 관능적인 유혹의 표상으로 기능한 예이다. 빨간 립스틱, 빨간 메니큐어는 매력을 이루는 요소로, 립스틱을 바른 입술과 매니큐어를 바른 손을 통해 그 사람의 매력을 환기시킨다. '빨간 리본'에서 리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묶는 도구로 기능하는데 여기에 빨간색이 결합함으로써 묶는 행위가 단순한 속박이 아니라 매혹적인 행위로서 저항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생명력 은유는 생명력 있는 상태의 범주 전체를 포함하므로 슬픔이나 고통의 감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외상으로부터 충격을 받아 상처나피, 멍 등의 신체 손상이 슬픔, 고통 등의 감정으로 연결되거나 슬픔, 고통과 같은 감정의 신체 반응으로서 우는 행위의 결과가 붉은색으로 표상되는 경우이다[34].

34) Kövecses(2000)은 감정 은유에서는 감정의 원인과 감정의 결과를 통한 환유가 일어날 수 있다

7) [슬픔]

- 새빨간 저 노을빛처럼 눈은 매일 **붉어졌었지**
  〈one summer drive/쿨〉
- 이 계절이 가면 너는 가겠지 내 곁을 떠나가겠지 저 먼 하늘가 노을빛처럼 가슴을 **빨갛게** 물들이면서
  〈계절이 가면/최유나〉
- 한이 맺혀 **빨갛게** 피어난 동백꽃 모진 비바람에 시달린 세월이 두려운가
  〈동백 에레지/이미자〉

결국 붉은색이 감정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은 서로 다른 은유와 환유의 경로를 거치는 것인데 강도 은유에서는 [감정의 강도 -〉 감정]으로, 생명력 은유에서는 [감정의 신체적 발현 -〉 감정]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8) [그리움]

- 또 다시 four five six **빨간** 눈물이 내려와 나를 안던 너의 향기가 그립다
  〈come back home/투애니원〉
-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나라 내 고향
  〈찔레꽃/백난아〉
- 노을 위에 나홀로 우두커니 서서 **빨간** 석양을 바라보다가 너무 빨리 사라져간 그 빛이 이젠 어둠으로 언덕 위에 쌓여갈 때
  〈떠나야 할 땐/이승철〉
- 강물 위에 피는 **빨간** 꽃불들은 아침이 돌아오면 사라지겠지
  〈강변연가/김완선〉
- 오시지 않는 님 기다림 속에 서산마루 저녁노을 **붉게** 타는데
  〈님마중/이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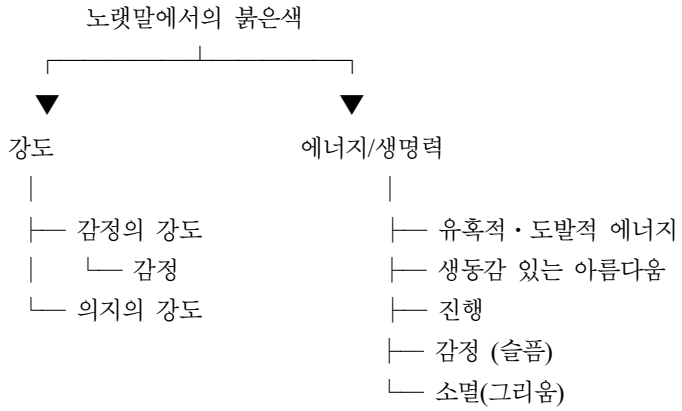
붉은색과 높은 빈도로 결합하는 공기어 중에는 '노을, 하늘' 등이 있고 이는 '그리움'이나 '소멸'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생명력 은유는 단순히 생동감이나 활성 상태를 의미한다기보다 생명력을 가진 상태의 범주 전체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붉음'이 신체화된 감정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해석되

고 보았다. 감정의 기본적 시나리오를 '원인-〉감정, 감정-〉반응'의 두 단계로 도식화하였다.

기는 어려운데, 노을의 '붉음'이 그리움을 환기하는 동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을이 지는 시간적 위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35]. 시간적으로 '그리움'이나 '소멸'을 생명력이 소진되는 과정으로 본다면 이때 붉은색은 생명력 은유에서 확대된 것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36].

마지막으로 '심장에 빨간 불 들어 on air'(〈Celeb/싸이〉)의 노랫말은 교통 신호의 '빨간 불'과는 반대의 의미를 갖는다. 신호등의 '빨간 불'이 사회적 기호로 '정지, 위험'의 의미를 가지는 반면, 위의 예에서는 '활성화, 진행'의 의미로 은유되기 때문이다.

살펴본 예를 통해 붉은색이 드러내는 개념 은유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5) 한국 시가나 가요에서 '노을, 석양'은 그리움, 이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소재로서 정형화되어 쓰이므로 한국 시가의 전통 문화적인 요소가 그 상징적 의미에 개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6) '슬픔'이나 '그리움' 은유에 해당되는 예에서는 자연 현상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례에 대해 '시간의 경과'나 '소멸'의 담화 관습적 은유를 별도 기제로 분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심사위원의 조언이 있었다. 해당 예는 담화 관습적 은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그러한 분석도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담화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은유가 해당 의미에만 한정적으로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간적 경과'나 '소멸'의 의미가 [생명력 은유]에 속하는 다른 하위 은유들과는 성격이 이질적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상위 은유로 포괄할 수 있는 방법은 생명력의 존재/부재, 혹은 생명력의 진행/소멸로 하위 유형의 층위를 구분하여 유형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붉다’, ‘빨갛다’ 은유의 맥락적 변이

3.1에서 다룬 개념 은유에서 색채어는 구체적인 신체 경험에서 추상적인 상징 의미로 발전하는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은유에는 신체 경험과 지각에 기반한 보편적인 측면이 있으나 구체적인 은유 표현과 그 사용 양상은 문화적 요소에 큰 영향을 받는다. 노랫말에 등장하는 색채어 은유의 예 중에는 문화 텍스트적으로 변이된 사례가 다수 등장한다.

위에서 제시한 개념 은유만으로는 이처럼 문화 맥락적으로 의미가 결정되거나 색채어가 표상의 도구를 넘어 기호 자체가 되는 사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붉은색이 색채어 은유의 보편적인 공식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9)
- 잡은 두 손 사이로 **붉은 실**이 보이죠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이무진〉
- 세상에 많은 연이 그대에게 있더라도 이 **붉은 실** 놓지 마라, 이 **붉은 실** 놓지 마라
〈붉은 실/임형주〉
- **빨간 약**을 택했죠. 뭐가 뭔지 짐작조차 되지 않지만 후회라곤 없어요.
〈Wish you hell/ 웬디〉

9)에서 ‘붉은 실’은 동아시아에서 공유되는 민속 신화에서 온 개념으로, 운명적으로 정해진 인연을 개념화한 것이다. ‘빨간 약’은 영화 〈매트릭스〉에서, 가상 현실인 매트릭스에서 깨어나 진실을 보게 만드는 알약으로,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는 선택’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쓰이고 있다. 이 두 예는 민속 신화와 영화라는 특정 문화 텍스트에서 형성된 상징 체계에 대한 공유 지식을 전제해야 이해할 수 있으므로 개념 은유의 토대인 신체적, 감각적 경험에 근거를 두기 어렵다. 두 사람을 연결하는 인연이 왜 붉어야 하는지, 불편함을 무릅쓰고 진실을 선택하는 매개체가 왜 빨간 색이어야 하는지, 즉 이 은유가 왜 해당 목표 의미와 결합하는지를 체험적 동기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Semino et al[37]은 은유 표현이 다른 텍스트나 담화에서 재사용되면서 새로

37) Semino et al, 위의 글.

운 의미와 기능을 획득하게 되는 현상을 재맥락화(regontextualization)로 논의하였는데, 위의 두 사례는 재맥락화가 색채 은유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 준다. 붉은 실과 빨간 약은 민속 신화와 영화에서 형성된 상징 체계가 노랫말이라는 새로운 텍스트로 재맥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공기어와 의미 변화 양상

1) '붉다, 빨갛다'의 공기어

노랫말에서 붉은색은 다양한 대상을 수식한다. 수식하는 대상은 크게 신체, 자연물, 인공물, 추상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영역에서 붉은색과 함께 나타나는 공기어는 다음과 같다.

〈표 4〉 '붉다, 빨갛다'의 공기어

		공기어
붉다	신체	입술, 얼굴, 볼, 낯
		눈, 손, 이마, 가슴, 심장
		피
	자연물	꽃, 동백꽃, 장미꽃, 찔레꽃, 사꾸라
		노을, 석양, 하늘, 태양, 단풍
		촛불
	인공물	등불, 수은등
		립스틱
		실
	추상물	사랑, 정성, 순정, 마음, 꿈, 말, 책임
빨갛다	신체	얼굴, 뺨, 볼, 눈물, 가슴, 눈, 입술, 심장, 숨
	자연물	꽃, 꽃잎, 선인장, 장미, 동백꽃
		불, 불씨, 촛불,
		능금알, 밤하늘, 석양, 노을, 루비
	인공물	위스키, 립스틱, 구두, 스타킹, 모자, 우산, 스웨터, 리본, 운동화, 스커트, 하이힐, 비키니
		공중전화, 자동차, 스포츠카, 양탄자, 레드카펫
		신호등
	추상물	거짓말, 말, 사랑, 마음, 입맞춤
	기타	약, 줄, 맛

‘붉다’의 공기어 중 신체는 ‘입술, 볼, 얼굴, 낯, 손, 이마, 가슴, 눈(눈가), 심장, 피’ 등이 나타나는데, 부위마다 주요한 상징을 드러낸다. 가장 많이 관찰되는 ‘입술’은 의지나 결의, 단념, 관능 등을 상징한다.

자연물은 ‘꽃, 노을(하늘), 태양, 단풍’이 있다. 그중에서 꽃은 장미꽃, 동백꽃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고 그 외에 사꾸라, 찔레꽃, 목단꽃, 그림자꽃 등이 보인다. 인공물에는 ‘등불, 립스틱, 실’ 등이 관찰되고 그 외에 ‘망또, 소매 자락’이 있다. 추상물에는 ‘사랑, 순정, 정성, 마음, 꿈, 말, 책임’ 등이 보인다. 이때는 주로 추상적 개념의 강도를 표현하기 위해 붉은색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붉다’ 공기어에 노을, 태양과 같은 자연 현상이 지배적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빨갛다’의 공기어는 립스틱, 구두, 스타킹, 스웨터, 우산 등 인공물과의 결합이 두드러진다[38]. ‘붉다’에서 신체와 결합한 경우는 ‘입술, 볼’ 등 얼굴 중심이었으나 ‘빨갛다’와 결합하는 신체는 ‘귓볼, 두 뺨, 익은 얼굴, 심장, 눈’ 등으로 세분화되어 나타나는 것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노랫말에서 공기어별로 나타나는 색채어 이미지의 특징은 동일한 공기어와 결합하는 색채어가 가지는 상징 의미가 뚜렷한 경향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다양하게 분기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39]. 붉은 꽃은 ‘유혹, 관능’의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그리움, 미련’의 의미를 상징하기도 하고 ‘붉은 입술’은 강한 의지나 단념, 정열을 드러내면서도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동일한 상위 은유 내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하위 은유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은유 자체를 넘나들면서 비유적으로 쓰이는 것이다.

---

38) 이는 실제 신문 자료(2011-2012)를 분석하여 ‘붉다’와 ‘빨갛다’의 색감적 차이를 밝힌 이선영(2012)의 분석 결과와도 동일하다. 이선영(2012:153)에서는 ‘구두’나 ‘립스틱’처럼 선명한 적색이 가능한 인공적인 사물의 경우 ‘빨갛다’가 더 많이 쓰이고 ‘해, 노을, 단풍’ 같은 자연물의 경우 ‘붉다’가 더 많이 쓰였다고 하였다.

39) 이는 박평화 외(2025: 193)에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색채어 ‘노란’은 “하나의 어휘가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 프레임을 교차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담화적 잠재성을 지닌 어휘”라고 설명하면서 색채어의 의미가 범주(희망, 슬픔, 위험 등) 간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2) 시대별 의미 변화 양상

(1) '붉다' 담화 의미 변화

'붉다'의 개념 은유 자체는 시대별로 그 양상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붉다'가 가지는 핵심적인 은유들은 1930년대부터 동시적으로 관찰되기 때문이다. 거의 전 시대에 걸쳐 '사랑, 그리움, 열정, 부끄러움' 등 감정을 드러내는 관습화된 원형적 은유가 관찰된다. 다만 붉은색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상징 의미들은 그 시대적 맥락과 결합하여 다양하게 해석되는바 색채의 사회문화적 함의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1930-1940년대는 먼저 일제의 탄압과 해방이라는 정치, 사회적인 상황과 맞물려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한 독립군가와 군국주의에 부응하는 군국가요를[40] 한 축으로 찾아볼 수 있다. 독립군가에서 '붉은 피'(광복군 행진곡, 1936)는 독립군의 저항 의지로 해석되는 한편, 군국가요에서는 '기운차게 떨어지는 붉은 사쿠라'(지원병의 어머니, 1941), '상처로 붉은 피로 써 보내신 글월인가'(결사대의 아내, 1941) 등이 등장하여 아들이나 남편을 전장으로 보내는 화자의 비장한 목소리를 통해서 황민화 이데올로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붉은색'이 특정한 정치적 이념을 표상한다기보다는 '강한 정도'를 의미하므로 '강렬함'이나 '헌신'의 의미에 정치적인 색이 덧입혀진 경우로 보인다.

또한 일제 시대 대중가요의 대표적인 양식인 트로트에서는 남녀 간의 '이별'과 나그네의 '방랑'이 주요 소재로 등장한다. 특히 이때 자연물이 감정의 주된 매개체로 작용하는데,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찔레꽃, 1942)과 같이 자연 풍경을 통해 환기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거나 '붉게 피는 동백'(낭자일기, 1942)처럼 인간의 아름다움을 붉은 꽃으로 치환

40) 이영미에 따르면, 노골적인 친일성을 드러내는 군국가요는 해방 후에 국가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노랫말을 개작하여 불리기도 하였다(이영미, 『일제 말 대중가요의 해방 후 개작 양상과 그 의미』, 『대중음악』 3, 한국대중음악학회, 2009.).

하여 표현하기도 하였다.

'붉은색'은 의미는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고향에 대한 향수라는 노랫말의 소재 안에서 '의지, 그리움, 사랑, 부끄러움' 등으로 변주되는데 이는 60년대까지 지속된다. 그 중에서도 '붉다'의 공기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붉은 입술'은 서로 다른 목표 영역으로 사상되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강도 은유인 '단념, 정열, 의지'와 생명력 은유인 '그리움, 관능적 아름다움'의 의미가 '입술'이라는 공기어어 함께 표현된다. 특히 1960년대 중반부터 '관능적 에너지'의 목표 의미로 쓰인 경우가 관찰되는데, 해당 은유가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1960년대에 기존 트로트와는 다른 미국풍의 서양 대중음악의 도입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관습화된 붉은색 은유 패턴이 관찰된다. 특히 노을, 태양, 단풍 등 자연 현상과의 결합이 이 시기에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붉은 노을'은 '그리움'을, '붉은 태양'은 '사랑, 정열' 또는 '희망, 번영'을 표상하는 것이 관습적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자연 현상과의 결합이 집중적으로 관습화되는 반면 신체 관련 공기어로 관능적 에너지를 표현하거나 이념, 사상을 드러내는 결합은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데, 이는 유신 시기의 사회적 압력이 붉은색 은유의 활용 자원을 특정한 방향으로 활성화시킨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2000년대 이후에도 이전 시기의 대표적인 결합인 '노을, 하늘, 태양' 등이 활발하게 사용되지만 감정의 방향이 확장되는 특징이 있다. 그리움의 의미로 수렴되었던 표현은 '열정, 자기 헌신, 소멸'의 다양한 맥락적 의미로 분화되는데, 관습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관습적인 감정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추측된다.

2010년대 이후 '붉다'는 '고독'이나 '실존적인 결핍' 등 개인의 내면적 정서를 드러내는 예가 나타나고 '붉은 책임'〈갈림길/한로로〉의 예와 같이 강도 은유의 예가 관찰되기도 한다

(2) '빨갛다' 담화 의미 변화

'빨갛다'는 신체와 결합하여 고통·상처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1930년대부터 등장한다. '새빨간 눈물'(1937년)이나 '빨갛게 젖은 얼굴'(1966년)과 같은 노랫말을 통해 신체의 색채 변화를 감정과 연결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새빨간 건달(1943년), 새빨간 거짓말(1957,1958)'은 이미 '새빨간'에서 색채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극단적인 완전함을 강조하는 의미가 완료된 상태로 쓰인 것인데 이러한 예 또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새빨간 위스키'(1937)는 '빨갛다'가 인공물과 결합한, 가장 이른 시기의 예로 보이는데 '붉다'가 인공물과 결합하여 쓰인 첫 사례가 '수은등 붉은 서울'(1967)이라는 점과 비교할 때 인공물과의 결합이 '붉다'보다 더 이른 시기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70-80년대에는 주로 꽃과 결합하여 '그리움, 열정'을 드러내거나 '빨간 불'로 정지의 교통 기호 은유가 작동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빨간색을 통해 열정과 멈춤이라는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는 '빨갛다' 은유가 변화하는 가장 큰 전화점이 된 시기로 보이는데, 이 시기부터 인공물과의 결합이 두드러지게 관찰되기 때문이다. '빨간 자동차, 빨간 모자, 빨간 우산, 빨간 루비' 등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도시 생활 속의 소품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그중 '빨간 우산'(김건모, 1996)은 우연히 빨간 우산을 쓴 그녀를 보았다는 설정에서 빨간색이 인연, 연결의 의미로 표상된다. 이는 민속 신화에서 연유한 붉은 실 은유와 관련지어 해석해 볼 만하다.

또한 '빨간 립스틱'은 노랫말에서 비교적 자주 사용된 소재인데, 관능, 매혹적 이미지와 연결되지만 시대에 따라 그 의미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재즈 카페/신해철〉에서 '빨간 립스틱'은 위스키, 브랜디, 블루진, 하이힐 등 외래 소비문화적 사물들과 나열됨으로써 서구적 취향이나 도시적이 세련됨의 의미가 파악되는 한편, 2000년대 이후에는 여성의 주체성이나 자기 표현의 도구(빨간 립스틱/볼빨간 사춘기)로 활용되는 예를 관찰할 수 있다.

빨간색은 2000년대 이후 화려함, 개성의 기호로 새롭게 정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빨간 운동화(박혜경/아이유, 2002)의 '어째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곱슬머리와 빨간 운동화'라는 노랫말에서 빨간색은 단점을 매력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어딜 걷고 있어도 빨간 바닥인 거죠'(트와이스, 2016)라는 노랫말은 레드카펫의 관습적 은유를 일상으로 가져와 레드카펫을 걷는 사람의 특별함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노랫말의 흐름에서 빨간색은 이전 시기에서 볼 수 있는 단순히 강렬함이 아니라 '주목받음・차별화・자기 확신'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2010년대 이후에는 '빨갛다'가 감각의 전이나 대상화로 쓰인 예를 찾을 수 있다. '빨간 맛 궁금해 Honey 깨물면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 맛'(레드벨벳, 2017)은 시각적 색채가 미각으로 바로 전환되는 공감각적 은유가 실현된 것이다. 이러한 연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빨간색'이 전형적인 사물의 색으로 안정화되어 있을 때 가능한데, 노랫말을 통해 드러나듯이 '스트로베리'라는 공통적인 지시 대상을 매개로 하여 시각이 미각으로 전이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빨간색-〉딸기-〉달콤함'과 같이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의미 연쇄를 통과하면서 색채어가 사물의 시각적 표지로 나타난 것이다.

'빨개요'(현아, 2014)의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나는 빨개요 몸 좀 풀고 달려 보려니까 빨간 거 그게 나니까'라는 노랫말에서는 색채어 '빨갛다'가 특정 인물의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색채어가 다른 대상을 표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시하는 동시에 인물의 정체성 표지로 기능한 경우라는 점에서 시대와 문화적으로 '빨갛다'가 어떤 위치를 갖는지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41].

41) '붉다'에도 '붉게 타올라 I wanna be red'(더 로즈, 2019)와 같은 예에서 유사한 의미가 관찰된다. 그러나 이는 직접적인 대상화보다는 빨간색으로 상징되는 특정한 상태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다룬 붉은색 은유의 변화 양상은 단순히 한 색채어의 의미 확장 양상이라기보다 그 변화가 대중가요 노랫말이라는 특정 담화 장르 안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상호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노랫말은 정해진 시간 안에 특정한 감정을 전달해야 하는 함축적인 장르이다. 그에 따라 노랫말에서 색채어는 단어 하나로 복합적인 감정을 환기시키는 효율적인 표현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붉은 노을’이라는 표현 하나로 그리움, 이별, 소멸 등을 동시에 환기시키고 이는 상위 층위의 은유를 넘나들며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노랫말이라는 텍스트의 압축성으로 인해 색채어가 가지는 다층적인 의미가 실현되는 것이다,

또한 노랫말은 시적 일탈을 허용하는 장르라는 점에서 색채어의 의미 확장을 이끌 수 있다. 일상 언어에서 모호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붉은 마음, 붉은 정성’ 등의 표현은 노랫말에서 자연스럽게 수용되는데, 이처럼 환유가 은유 확장의 동기로 작용하는 현상이 장르적 특성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가요 노랫말은 시대 변화를 가장 빠르게 흡수하면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장르이다. 과거의 노랫말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통되면서도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랫말 텍스트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 즉 1942년 찔레꽃을 통한 고향의 그리움과 2025년 빨간 사랑의 열정은 같은 시간대의 청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색채 은유의 시대별 변화와 의미 퇴적이 텍스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10년대 이후 색채를 단순히 묘사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을 지시하는 대상으로 사용하는 현상은 미디어 변화를 흡수한 텍스트에서 관찰할 수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텍스트 장르적 특성과 상호작용하는 언어 표현 중에서 색채어의 의미는 공기어와 함께 다양한 상징 의미를 갖는다. 또한 사회 문화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의미 또한 적지 않다. 이처럼 다층적으로 나타나는 색채어 표현을

수집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특정 색채어가 본질적으로 은유하는 공통된 상위의 목표 의미를 도출해 내는 작업은 인간이 색채어를 인지, 지각하고 활용하는 방식 또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00여 년에 걸쳐 '붉다, 빨갛다' 계열 색채어가 어떠한 상징 의미들과 결합해 왔으며, 그 결합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의미 유형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정량적인 대표성을 가지는 해석과 빈도 검증은 더욱 대규모의 코퍼스를 갖춘 후에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 둔다. 또한 본고에서는 붉은색에 한정하여 은유 의미를 관찰하였으나 이는 다양한 색채어로 확장하여 논의할 수 있으며 동일한 색채에 대한 여러 변이형 간에 나타나는 의미 차이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구본관, 「한국어 색채 표현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형태론』 10, 형태론, 2008.
김기수, 「개념은유이론의 발전과 평가」, 『영어영문학연구』 56-4,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2014.
김상진, 「정치담론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18.
김태헌, 「개념적 은유를 촉발하는 언어 표현」, 『언어과학연구』 54, 언어과학회, 2010.
김해연, 「국어 기본 색채어와 파생어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코퍼스언어학적 분석」, 『언어』 39-4, 한국언어학회, 2014.
나지영, 「한국 색채의 상징성과 일상성」, 『조형예술연구』 6, 상명대 조형예술연구소, 2002.
남신혜, 「한국 걸그룹 노랫말에 나타난 여성 화자의 주체성 변화에 대한 언어학적 탐색」, 『우리어문연구』 77, 우리어문학회, 2023.
_____, 「언어 자원으로서의 케이팝 노랫말 활용을 위한 국어정보학적 모색」, 『언어사실과 관점』 61,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2024.
문금현, 「색채어 관련 관용 표현에 나타난 인지의미 양상」, 『국어국문학』 163, 국어국문학회, 2013.
박윤우, 「대중가요의 활용을 통한 시의 화자 이해」, 『국어교육』 43, 한국어교육학회, 2007.
박중우, 『한중 색채 형용사 대조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21.
박평화 외, 「색채어 ‘노란’의 담화적 의미 연구 -은유와 환유를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90, 한국어의미학회, 2025.
손세모돌, 『국어 색채어 연구』, 『한말연구』 6, 한말연구학회, 2000.
송현주, 「색채 형용사의 의미 확장 양상」, 『언어과학연구』 24, 언어과학회, 2003.
신현숙・박건숙, 「한국 문화에 나타난 색채어 의미 연구」, 『국어교육』 125, 한국어교육학회, 2008.
심지연, 「전쟁 도식 은유의 연사적 연구」, 『한국학연구』 52,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5.
엄훈, 「한국어 색채어의 표색 체계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10, 국어교육학회, 2000.
요네다 쇼, 「환유적 감정 표현 한일 대조 연구: 색채 표현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4.
이경자, 「색채어의 범주와 의미 고찰」, 『어문논집』 4-5, 충남대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985.
이대현, 『국내 인지의미론 연구 동향 및 전망: 생성형 AI 기반 범주화 및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32-2, 담화・인지언어학회 2025.
이선영, 「후기 중세국어 색채어의 어휘적 특징과 의미」, 『국어학』 47, 국어학회, 2006.
_____, 「국어의 기본 색채어와 그 의미」, 『국어국문학』 162, 국어국문학회, 2012.
이영미・이준희, 『사의 찬미 (외)』, 종합출판범우, 2006.
_____, 『일제 말 대중가요의 해방 후 개작 양상과 그 의미』, 『대중음악』 3, 한국대중음악학회, 2009.
_____, 『한국대중가요사』, 민속원, 2015.
이정애, 「국어 색채어의 의미와 시각의 보편성」, 『한국어 의미학』 27, 한국어 의미학회, 2006.
이지용, 『인지의미론의 ‘개념적 은유’에 관한 연구 현황 분석』, 『어문논집』 85, 중앙어문학회, 2021.
이지이, 「2010년대 한국 대중가요의 가사 유형 연구」,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2023.
임동휘, 「독립신문 영문판의 ‘국가’ 은유 연구」, 『언어학』 77,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2017.
임지룡, 「개념적 은유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20, 한국어 의미학회, 2006.
장유정, 『오빠는 풍각쟁이야』, 민음인, 2006.
전혜영, 「은유 표현을 통해 본 한국인의 질병관」, 『한국문화연구』 30,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6.

조영수,『색채의 연상』, 가디언, 2017.
최 윤,「한국어 고유어 색채어와 그 공기어의 의미-색채어와 명사, 동사와의 공기 관계 분석을 통해-」,『영주어문』55, 영주어문학회, 2023.
한성우,『노래의 언어』, 어크로스, 2018.
Kövecses, Z.(2002),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이정화 외 옮김(2003), 은유, 서울: 한국문화사.)
Lakoff, G. & Johnson, M.(1980), Metaphors We live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노양진・나익주 옮김(2006),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박이정.)
Lakoff, G.(1993), The Contemporary Theory of Metaphor“, In A. Ortony(Ed.), Metaph or and Thought(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emino, E., Deignan, A.& Littlemore, J.(2013), “Metaphor, Genre, and Recontextualization”, Metaphor and Symbol, 28-1.

【Abstract】

The Conceptual Metaphors and KIscourse Meanings of "Red" in Korean (Bulgda, Ppalgata) : A Study of Popular Song Lyrics

Jeong, Ju-ye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ymbolic meanings of color terms in the "red" category—as they appear in Korean popular song lyrics spanning roughly a century, from the 1930s to the 2020s—through the framework of conceptual metaphor theory, and to trace their patterns of change over time. First, the color terms "bulgda" and "ppalgata" (both meaning "red")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ir combinatory environments, describing their varied target meanings within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conceptual metaphor theory. At the highest level of conceptual metaphor, "bulgda" and "ppalgata" combine with the two target domains of "intensity" and "vitality," which further branch into more specific meanings such as will, passion, love, shame, seductive beauty, sorrow, and longing. In addition, by analyzing co-occurring words, this study observed that the two color terms combine distinctively with the body, natural objects, artifacts, and abstract entities, and analyzed how the symbolic meanings of "bulgda" and "ppalgata" are each realized differently across historical periods. Finally, the study discusses how these metaphorical patterns of the color red interact with the discursive characteristics of popular song lyrics.

Keywords: red, crimson, color term, metaphor, color metaphor, conceptual metaphor, symbol, popular song, lyrics, song lyrics, discourse meaning, Korean pop lyrics, Popular song lyrics.

접수일: 2026.06.30. || 심사일: 2026.08.07. || 게재확정일: 2026.08.14.

* Korea Univ.